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10 통권 제58호

現代經濟研究院

統
一
統
一
統
一

統
一
統
一
統
一

10

1999

제58호

통 권 제58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10월 11일
발 행 인 김중동
편 집 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정교 유병규
김선덕 김화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승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 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2636-0555

편집자의 글

- 전환기의 북미 관계 2

포커스

- 페리보고서의 정치·경제적 함의 · 김재홍 3

특집

- 남북한 주요 SOC의 협력 가능성 진단
전력 및 에너지 부문 · 정우진 10
정보통신 부문 · 김상택 · 공영일 17
수자원 부문 · 고덕구 26

경험정보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II): 분쟁 처리 및 해산 · 청산 · 활동연 32

논단

- 제4차 국토계획안과 효율적인 남북한 산업 입지 연계 개발 방안 · 박영철 40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 변화 움직임의 배경과 전망 · 허문영 54
한중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본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동기'와 '접근' · 이영길 67

북한경제

- 북한 경제, 과연 회복되고 있는가? · 권오홍 79

인물초점

- 독일 통일의 주역들(V): 로베더(Rohwedder)와 브로이엘(Breuel) · 박상봉 86

독자기고

- 남북 경협과 남북 관계 개선 · 정지웅 9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환기의 북미 관계

■ 를린북미회담 합의로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에는 변화의 조짐이 예견된다. 이번 합의 이후 주목되는 사실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완화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예 선언이다. 이는 금년 들어 경제 회복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동북아 지역내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요인을 억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짐으로써 도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호의 포커스는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된 폐리보고서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와 관련된 각종 상황의 표면과 이면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임을 설파하고 있다. 특집에서는 “남북한 주요 SOC의 협력 가능성 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전력 및 에너지, 정보통신, 수자원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전력과 정보통신은 남북 경협과 직접 연관된 부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경협정보에서는 북한의 투자법 가운데 주로 현지 투자·운용 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와 청산제도와 관련된 분야를 분석·정리해보았다. 논단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박영철 연구위원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협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산업 입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 허문영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 변화 움직임의 배경과 전망”의 제목으로 북측 대외 태도 변화의 이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영길 팀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중국방장관회담의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 원고 가운데서 흥미를 끄는 내용은 금년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북한 경제 상황을 현실적인 감각에서 분석해놓은 (株)長漢信息 권오홍 대표의 기고다. 그는 북한내 식량배급제도 부활 등 최근의 회복 기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즉, 지금의 북한 경제는 근본적 회복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의 회복 도모 과정에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는 독자들에게 북한 경제 분석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분석 방법을 권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경협 과제와 방안, 북측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 움직임 등을 지적하였다. 지난 10월초 현대와 북한과의 경협 사업 합의는 북미베를린회담 타결과 함께, 남북 경협 활성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협 활성화를 통한 쌍방 협력 확대가 최선의 남북 관계 개선 방향임을 상기하면서, 서둘지 않되 중단없는 虎視牛行의 실천력 있는 경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1999년 10월
편집자